

## 반환되는 미군기지 용산

이종화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지난 50여 년, 용산이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우보된 땅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아무도 가지지 못하는 개발시대의 광풍을 비껴가게 했으니 말이다. 20년이라도 먼저 반환되었더라면 이미 지금처럼 출가음(?) 논의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꿈꿀 수 있는 좋은 도시는 도시 내의 모든 장소들이 각각의 성격들을 가진 채 깊은 연계 속에 커다란 네트워크로서 울췌하는 도시다. 그 네트워크의 합계운태를 기회의 땅 용산이 전될 군사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땅의 역할은 동시에 그 주변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서울 면적의 0.5%도 되지 않는 이 땅의 미래는 서울 전체와 한반도, 좀 더 확장하면 동북아 및 세계화 단계하여 시공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2006 05 M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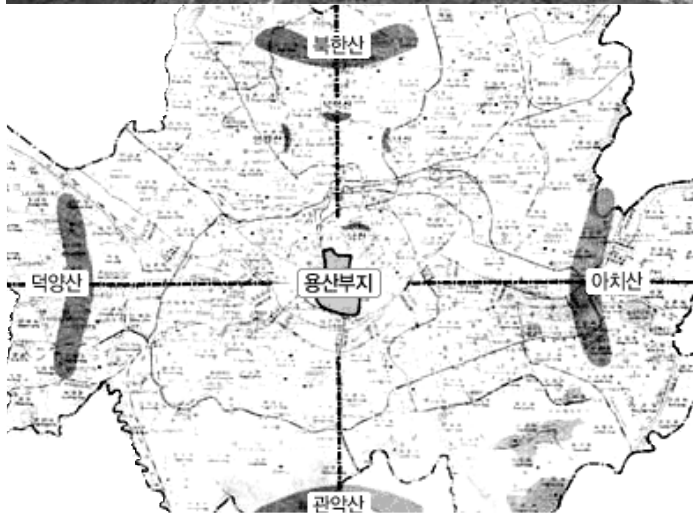
## 속도전에 익숙한 오래된 개발론

용산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미군의 철군을 또는 환경을 말하는 여러 갈래의 시민운동가들, 도시 관련 인사들과 관료들 그리고 최근의 서울시장 지망생들까지 모두가 입을 열어 용산을 말하고 있다. 만 가지의 이야기와 그림들을 풀어내고 있다. 마치 용산을 가지고 서울의 모든 과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려는 듯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용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금기이거나 용기였다. 용기도 민주화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의 기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못내 부끄러워 목청을 높이던 일이었다. 꽤 먼 미래의 일이었고 마치 한 발 앞서 깃발을 흔든다는, 그래도 여유를 가진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지의 이동이 현실로 불쑥 다가와 버렸다. 계획대로라면 두 해도 남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다.

이 나라의 도시를 다루는 과제들은 항상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재정비', 월드컵 또는 무순 국제회의를 앞둔 '가꾸기' 속에 늘 있었다. 삶은 전쟁이었고 도시는 전장이었다. 여의도를 만들던 일처럼 과격한 전투였다. 당시의 뉴스 화면에는 제방을 쌓을 돌을 머리에 인 아낙들이 줄을 잇고 있었다. 천리마 운동과 다를 바 없는 속도전이었다. 강남을 만들던 일 또한 마찬가지였다. 오늘 서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남이 어떠한 논의의 과정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며 진행되어 왔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 최근의 '청계천 사업'에 이르면 그 양상은 비슷하되 좀 더 복잡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당초 이 일을 제기했던 시민사회의 논의에는 환경의 과제가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도시사회 전체의 비전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가치관이 우선이었다. 그것은 도시의 구조와 도시에서의 삶이 자연과 이루어 나가는 총체적인 관계, 생명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청계천을 통해 실천해 내고자 하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제안은 이내 변질되었다. 속도전에 익숙한 오래된 개발론이 환경의 옷으로 살짝 포장되었다. 그리고 이내 청계천의 희망을



용산 전경



용산에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후에 총독 관저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의 가로망 대부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의 효용도 점점 더  
확대되었고 급진적하 힘의 주체가 바뀌며 결국 오늘의 '더 유에스 용산 콤플렉스'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길고도 긴 장소의 역사다. 이 지역이 지금 뜨거운 이슈로 등장된다는 것은 길게는 칠백  
년, 짧게는 백여 년의 역사적 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다.

사진 출처 : 용산구청 홈페이지

‘신개발주의’의 틀 속으로 밀어넣어 버렸다. 형식이 내용을 덮은 것이다. 소통의 물길 대신 세상에서 가장 큰 인공의 분수를 만들어 버렸다. 주변부의 도시 조직들이 신중하지 못한 생각 속에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합의의 과정 또한 다르지 않았다. 애꿎게도 한때 ‘시민위원회’라는 곳에 소환되어 메아리 없는 글을 썼고 아무도 안 보는 그림을 그렸다. 시장의 ‘결단’은 여전히 개발시대의 모습을 닮았다. 지금 비록 시민들이 ‘청계천 사업’이 만들어 낸 걸보기의 변화를 잠시 즐기고 있다 해도 아마 10년이 가기 전에 그 동안 성급히 지나친 여러 부분들, 이 물길과 장소가 가진 의미들을 살려내어 도시 공간의 의미들과 연결시키는 과제 등등이 다시금 논의의 대상으로 재등장될 것임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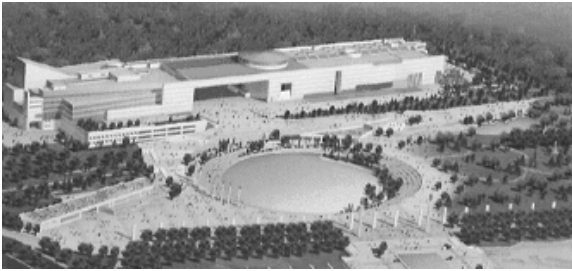
#### 도시의 커다란 네트워크 속, 기회의 땅 ‘용산’

용산의 서쪽은 인왕산을 흘러내린 지세가 지금의 효창동을 지나 한강변의 용두봉까지 이어지며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남산에서 이어내려 지금의 이태원과 보광동을 잇는 흐름이 이 영역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 그 사이를 강이 하나 흐른다. 지금의 용산 전자상가를 지나가는 길 아래 숨어 있다. 서울역 뒤편을 따라 무악재에 이르는 용산강이다. 용산에 관한 사료는 고려 시절에 등장한다. 이곳에 청파역과 나루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새 도읍 한양이 조성되니 이곳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번성한 물자의 집산지였다. 서강 쪽이 한강을 따라 올라온 물자들의 집산지였다면 이곳 용산강의 입구는 한강을 따라 내려온 조운선들이 정박하던 곳이었다. 칩락군대 주둔지의 역사는 몽고군이 그 첫번째였다. 조선조에는 내내 병조가 관할하는 병참기지로 군사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임란시절에는 도요토미의 군대가, 청일전쟁 때부터는 일제의 군대가 거점을 삼아 움직였다. 뱃길과 나루를 가진 이유로 계속 중요했던 이곳에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노량진에서부터 철교가 이어지고 역(용산역)이 세워진 것이다. 남대문으로부터 근대적인

도로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막사로 구성된 주둔지에 불과했던 이곳에 본격적인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주거지역이 만들어지고 후에 총독의 관저까지 들어서게 되었다. 오늘의 가로망 대부분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리고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이곳의 효용도 점점 더 확대되었고 급진적하 힘의 주체가 바뀌며 결국 오늘의 ‘더 유에스 용산 콤파운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길고도 긴 장소의 역사다. 이 지역이 지금 뜨거운 이슈로 등장된다는 것은 길게는 칠백 년, 짧게는 백여 년의 역사적 과정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다.

지난 50여 년, 이 지역이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유보된 땅으로 남겨져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앞뒤도 가리지 못하는 개발시대의 광풍을 비껴가게 했으니 말이다. 20년이라도 먼저 반환되었더라면 아마 지금처럼 즐거움(?) 논의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이리저리 찢겨어진, 그러나 그 각각의 이유들은 그럴싸해도 전체의 이야기는 담겨지지 못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강남 한구석을 떼어다 놓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이 나라 도시의 패러다임이 ‘개발’과 ‘양’의 문제로부터 겨우 ‘환경’과 ‘질’의 과제로 전환된 것은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이 벌어진 1989년 이후였으며, 그 극적인 전환점은 남산 외인 아파트의 폭파해체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르러 좀 더 포괄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전망으로 이 땅을 논의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용산에서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71만 평으로 여의도(90만 평)보다 작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0.45%이며 남한 전체 면적의 0.0027%에 불과하다. 그 동안 한국군의 관리 영역에 전쟁기념관이 들어섰고 1991년에는 골프장 부지 9만 평의 반환이 이루어져 용산 가족공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중 6만 7천 평에는 말 많은 국립박물관이 이전 개관되어 있다. 골프장 반환을 즈음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용산가족공원

현재 용산에서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7만 평으로 여의도(90만 평)보다 작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0.45%이며 남한 전체 면적의 0.0027%에 불과하다. 그 동안 한국군의 관리 영역에 전쟁기념관이 들어섰고 1991년에는 골프장 부지 9만 평의 반환이 이루어져 용산 가족공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중 6만7천 평에는 말 많은 국립박물관이 이전 개관되어 있다. 골프장 반환을 즈음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용산에 관련된 논의의 대세는 '공원'이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대부분 '뚜렷한 경계를 가진 토지이용계획'이다.

사진 출처 : 용산구청 홈페이지

관련된 논의의 대세는 '공원'이다. 그리고 그 계획들은 대부분 '뚜렷한 경계를 가진 토지이용계획'이다. 그 경계선 밖의 도시들을 상상하지 않는다. 경계선 밖은 각각의 사연으로 움직여 왔다. 바로 앞 한강변은 이미 아파트의 숲이며 남산과의 사이에는 오랜 주거지가 가로놓여 있다. 서측 용산역 일대에는 별도의 계획이 그려지고 있으며 동측에는 크고 작은 단위의 재개발계획들로 꿈틀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 땅을 그간의 군부대로서의 고립에서 다시 고립된 공원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다. 이 땅은 막연히 환경과 생태의 폐쇄적 역할로 머무를 수 없다. 오늘 꿈꿀 수 있는 좋은 도시는 도시 내의 모든 장소들이 각각의 성격들을 가진 채 깊은 연계 속에 커다란 네트워크로서 움직이는 도시다. 그 네트워크의 한가운데를 기획의 땅 용산(이전될 군사기지)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땅의 역할은 동시에 그 주변부와의 관계 속에서만 멈추지 않는다. 서울 면적의 0.5%도 되지 않는 이 땅의 미래는 서울 전체와 한반도, 좀 더 확장하면 동북아 및 세계와 연계하여 사고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

우리는 지금 숨 가뻐던 산업사회를 통과하여 후기산업사회의 구조 속으로 성큼 들어와 있다. 후기산업사회의 구조는 많은 부분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얽힌다.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축적은 다시 한 번 과잉 축적의 위기를 맞았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 수정의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 양상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중 우리는 그 전략 속에 담긴 공간의 과제, 다시 말해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에 관심을 기울인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제조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노동력의 집중이 도시를 만들고 팽창시켰던 것이라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그 생산의 장소를 국내외의 먼 곳으로 확산시키면서 기존의 도시는 그것들을 위한 고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기지로 변모시킨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유인하고 다양한 서비스 분야 간

용산은 군부대로 구획되고 철길로 나누어져 그 흐름이 가능치 않았던 배치의 도시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견고하게 할당된 역할만을 해낼 뿐 그 어떤 생성도 만들지 않았던 존재의 도시였다. 또한 군, 민 그리고 관 모두 개별적인 욕망을 좇아 움직여 왔으며 여전히 가시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가치의 과제를 논하지 않았던 미학의 도시였다. 이제 그것을 흐름을 향해, 생성을 향해 그리고 가치를 향해 사고하고 실천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의 소통과 시너지를 위한 구조로 도시를 재편시킨다. 즉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와 도시구조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만들어 내려 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그리하고픈 많은 도시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만들어낸다. 경쟁의 핵심은 거주와 방문 모두를 포함한 사람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무형의 재화들의 원활한 흐름에 있다. 필요한 사람을 불러 모으며 소통과 흐름을 가능케 하는 일에 그 도시가 가진 매력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매력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이 요구되고 삶의 질 속에 환경, 공공영역,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이미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가 압도적인 요소로 등장되는 것이다. 여기서의 문화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생활의 미시적 영역까지 스며드는 일상의 문화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자본과의 얽힘에 근거하고 있다 하여도 그 내용들은 동시에 오늘의 도시에서 요구되는 삶의 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러한 움직임들이 배제시키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슈를 포함한 보다 지속가능한 삶과 그것을 위한 공간 관리에 세심한 경계가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이후의 도시를 작동시키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어야 한다.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도시는 과거 산업사회의 도시들과는 세 가지 점에서 확연히 그 지향을 달리해야 한다. 첫째, 과거의 도시가 필요한 기능에 따라 구획을 설정하고 대상영역을 규정하며 지배하려 한 ‘배치의 도시’였다면 새로운 도시는 도시 내의 수많은 장소들이 가진 저마다의 잠재된 의미를 재인식하고 그것들을 여러 갈래의 계열 속에서 서로 관계시키고 교차시키는 ‘흐름의 도시’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도시가 주어진 규정을 좇아 움직여 온 단 하나의 예를 우리가 알지 못하며 기실 그것은 도시 사회가 애당초 가지고 있는(또는 가져야 할) 역동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의 도시가 거기 그렇게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여 그 속에서 제한


된 역할을 분담하는 '존재의 도시' 였다면 새로운 도시는 그 장소들의 관계와 충돌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고 또 지속시키는 '생성의 도시' 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도시는 대상을 규정하는 단일한 의지에 따르기보다는 도시를 살고 있는 수많은 의지들이 경합하며 쌓여 나가는 것인 동시에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거의 도시가 물리적인 윤곽과 가시적 경관을 만들고 이야기했던 '미학의 도시' 였다면 이제 새로운 도시는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사회적 과제들을 주의 깊게 살펴 관통해 낼 수 있는 '가치의 도시' 를 지향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도시에는 빈부의 격차, 고밀도, 환경 그리고 소통의 과제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직시해야 할 계획가들의 가치관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의미의 교차와 충돌 속에 형성되는 서울을

그와 같은 세 가지의 다른 지향성을 놓고 볼 때 이 지역 용산은 군부대로 구획되고 철길로 나누어져 그 흐름이 가능치 않았던 배치의 도시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견고하게 할당된 역할만을 해낼 뿐 그 어떤 생성도 만들지 않았던 존재의 도시였다. 또한 군, 민 그리고 관 모두 개별적인 욕망을 좇아 움직여 왔으며 여전히 가시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가치의 과제를 논하지 않았던 미학의 도시였다. 이제 그것을 흐름을 향해, 생성을 향해 그리고 가치를 향해 사고하고 실천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유보가 우리의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의 팽창은 이 땅을 건너뛰며 바깥을 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땅은 전체 서울의 지리적 중심이라는 뜻하지 않은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북한산에서 남산을 거쳐 관악산에 이르는 서울의 산계와 유장하게 흐르는 서울의 수계가 서로 교차하는 모하고도 의미 깊은 위치가 되고 말았다.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커다란 행운이다. 이 빈 곳이 움직이는 향방에 따라서 서울의 미래가 의미로 또 무의미

로 전개되는 가능성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 이곳이 잘 작동되어 서울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한 공간적 성장 동력의 바탕이 될지는 이 장소를 논의하고 만들어 가는 민주적이며 문화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는 겨우 반면의 교사일 뿐이다.

성급하게 말해보자. 함께 나눌 다양한 이 시대의 가치를 담고 내부의 장소들 각각의 의미들이 존중되며 교환되는 흐름을 가로막지 않는 동시에, 그 의미들의 교차와 충돌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들을 생성시키는 커다란 체계에 의해 이곳을 중요한 거점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프랙탈 구조의 원점처럼 작용시켜 서울의 곳곳, 기존의 장소들을 닮은꼴이, 그러나 또 다른 거점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점들 사이에 강하고 두터운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서울 전체를 그물망처럼 뒤덮고 마침내는 서울의 바깥으로까지 반복되어 나간다. 이 땅만을 가지고 논의해서는 안 될 일이며 도시를 다루던 과거의 사고로서는 안 될 일이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진 마지막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2006 05 May